영광군수·광주 시의원(남구) 보궐선거 후끈

영광군수 예비후보만 10여명 인지도 높이기 주력

남구 시의원 자천타천 8명 물망…강도석씨 또 출마

18대 총선이 끝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영광군수 및 광주 남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입지자들이 몰리면서 이들 지역에선 또다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군수 및 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10명 안팎의 인사들이 자천타천의 후보로 거론되면서 물밑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광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이날 현재까지 10명의 입지자가 등록, 표밭갈이를 시작했다.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이 강종만 전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5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에선 정기호 전 전남도의원과 김천식 전 군수선거 출마자, 김연관 전 민주당 영광지역 위원장, 정화균 전 영광부군수, 김준성 영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들은 4·9총선 때와 같이 여론조사 경선으로 공천이 결정될 것에 대비, 지역민들을 상대로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무소속으로는 김규현 전 영광군의회 의장과 장현 호남대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전 호남일보 사장, 최종걸 전 연합뉴스 기자, 그리고 김태갑 전 전남대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 남구의 경우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강도석 전 광주시의원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자는 없지만,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한 강운태 전 내무부 장관과 현역인 민주당 지병문 의원 계열에서 각각 4명씩 모두 8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만곤·조영표 남구의원, 이창호·김선문 전 남구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무소속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강 전 장관측에서 활동했던 최영호 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원균 전 남구의원, 정재수 전 서구의원 그리고 김시곤 무등외식산업 대표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강도석 전 시의원도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보궐선거는 전통적으로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총선에 바로 뒤이어 치러지는데다, 이들 두 지역 모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대결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례에서 첫 잔을 올리는 '초헌관' 자격으로 노씨 종친회 삼릉단 단향제에 참석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온 盧 시국 질문에 미소만…

문중 대제, 5·18 묘역 참배…오늘 나비엑스포에

새 정부 '혁신도시 재검토' 입장 묻자 일절 함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치동 노씨 문중 선산에서 열린 노씨 종친회 삼릉단(三陵壇) 단향제에 첫 잔을 올리는 '초헌관' 자격으로 참석, 제례를 지냈다. 광주 노씨인 노 전 대통령이 광주 지역에서 열리는 단향제에 참석한 것은 지난 1998년 종로 보궐선거 당선(국민회의) 된 뒤 10여년 만으로, 같은 성씨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전에 두 번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담양의 한 음식점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찬용 현대·기아차그룹 인재개발원장,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용섭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노 전 대통령 내외는 오찬에 참석한 인사들과 함께 이날 오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광주 노사모', '광주·전남 참평포럼 동우회' 회원 등 200여명은 노 전 대통령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사랑합니다','국가균형발전은 지속돼야 합니다'라는 플래카드와 노란 풍선을 흔들며 환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최근 새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함구로 일관, 당분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립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강물처럼'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대선 시절 도움을 준 광주·전남지역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뒤 21일 함평으로 이동,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노 전 대통령) 얼굴이 많이 편해지셨더라"며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려 하셨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재오 지리산행 왜?

'해외 유학이냐 국내 잔류냐'

MB 귀국 후 거취 결정할 듯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20일 지리산으로 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리산에서 며칠간 머무른 뒤 전남지역 방문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18대 총선 낙선 이후 두문불출하며 향후 행보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패배였던 만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의 입성 실패로 인해 친이계의 수장 자리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 측근 간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 전 최고위원의 거취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당초 해외유학을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국내 잔류설로 돌아섰다는 설이 다시 감지되는 상황이다. 해외순방 일정을 떠나기 전 이 전 최고위원과 면담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이 '5월 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 역시 다시 그의 거취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포스트 이재오'를 노리며 고개를 드는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대통령과 원활히 소통하며 일정 역할을 해 낼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이 원외 당권도전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그가 잔류할 경우 또다시 계파갈등의 주축으로 지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부 측근들은 해외 유학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느냐, 떠나느냐'에 대해 고심은 쉽사리 매듭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지리산행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도 있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번 지리산행의 구체적 목적지 등에 대해서는 측근들에게 철저히 함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지역의 한 측근은 "우선 지리산에 며칠 머문 뒤 전남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일정은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심신이 많이 지쳐 언론 등으로부터 멀리 있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당 대표-원내대표 짝짓기 윤곽

정세균+원혜영, 추미애+(?) 구도 등

5월·6월 경선 앞두고 '합종연횡' 분주

통합민주당의 차기 당권경쟁의 밑그림이 서서히 가시화되면서 당권주자와 원내대표 후보군 간 짝짓기 움직임이 활발하다.

원내대표 경선은 5월 중순, 당 대표 경선은 6월 중순에 치르게 돼 있으나 두 경선 모두 당내 역학 관계 속에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계파 또는 지역간 세불리기 합종연횡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적잖은 의원 장악력을 행사하게 되는 새 원내대표를 우군으로 확보한 당권주자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은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안팎에서 가장 우선 거론된 제휴 대상은 정세균-원혜영 의원. 두 사람은 열린우리당 시절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출신의 원 의원이 호남 출신 정 의원의 보완재 역할을 하면서 양대 축인 호남과 수도권 표를 골고루 견인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거여에 맞설 야당 '투톱'이라는 점에서 너무 유약해 보이는 연대라는 지적이 걸림돌이다.

이번 총선에서 부활한 추미애 전 의원의 경우 영남 출신으로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어 상대를 고르기에 편한 상황이다. 제휴의 상대를 손학규계로 할지, 정동영계로 할지가 고민일 정도. 하지만 이 그림과 상관 없이 전북의 이강래, 강봉균 의원, 충청의 박병석 의원이 짝짓기 상대로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檢 '허위 학력' 이한정 당선자 영장 청구

18대 총선 첫 사례…창조당 당선 무효소송 내기로

학력 및 경력 위조 논란의 중심이 됐던 창조한국당 이한정(57) 비례대표 당선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한정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당선자의 구속여부는 21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18대 총선 정당 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학력을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또 중국 옌볜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최종학력을 '옌볜대 정치학과'로 기재하고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당선자가 창조한국당에 낸 돈(2천만원)의 성격과 납부과정, 비례대표 공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날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21일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창조한국당은 3석인 의석수를 잃지 않게 되며 비례대표 3번 후보였던 유원일 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승계한다.

/임동욱 기자 tuim@